

경제동향

■ 요 약

■ 경 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지역의 생산지수는 83.6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2월 서울 제조업부문 출하 감소, 재고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각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6.9%, 대형마트 21.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8.9% 증가 - 대형소매점 판매 증가는 설날 및 졸업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이라 예측됨 ○ 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으로 3개월 연속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1.7% 상승,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2% 하락, 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상승 - 생활물가 전월대비 0.4%,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3.1% 각각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0%로 전년동월대비 0.9%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한 61.0%임 ○ 2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2.1% 감소, 전월대비 청년취업난 소폭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0천명(1.3%) 증가한 4,80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5천명(0.9%), 여자는 35천명(1.7%) 각각 증가 - 청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4%) 1.7%p 차이를 보임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하며 꾸준히 증가 ○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5.8%p 상승한 5.8%, 전국대비 0.9%p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실업률은 남자는 6.5%, 여자는 4.9%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7.4%로 전국의 고용률(56.6%)보다 0.8%p 높은 수준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9,33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4% 증가 - 공공부문에서는 전년 신규주택 및 도로공사 수주가 많았으나 금년에 감소하면서 60.2%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재건축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116.0% 증가 ○ 2월 기준 서울 주택매매가격 강북지역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강남지역 상승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강북지역(0.1%)에서는 강북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순으로 상승하였고, 강남지역(0.3%)에서는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가 상승을 주도 ○ 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남지역과 강북지역 하락한 지역 없이 상승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북지역(0.6%)에서는 광진구, 용산구,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강남지역(0.9%)에서는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가 상승을 주도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6조 7,20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09% 증가 ○ 1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12개로 전월대비 8.1% 감소 ○ 1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1개로 전월대비 17.7% 감소 ○ 2월 서울시 수출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서울의 수출은 30.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6.5% 증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다음은 자동차부품, 컴퓨터, 합성수지 등의 순 - 2월 서울의 수입은 72.8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30.5% 증가. 수입 1순위는 식유제품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의 순

| 생 · 산 |

2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2월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서울시 생산지수는 83.6(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2.8% 감소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가죽 및 신발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산업생산지수 7개월째 이어지던 성장세 마이너스로 반등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 부문 증가, 경공업 부문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5.8% 상승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감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여 3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반등

■ 전국의 2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

- 전국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 기타운송장비(-11.2%), 석유정제(-5.0%)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53.2%), 자동차(32.5%) 등의 호조로 19.1% 증가하여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업종(-6.2%)이 설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교육(14.1%), 운수(13.9%)가 설 이동 임대(11.0%) 등도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7.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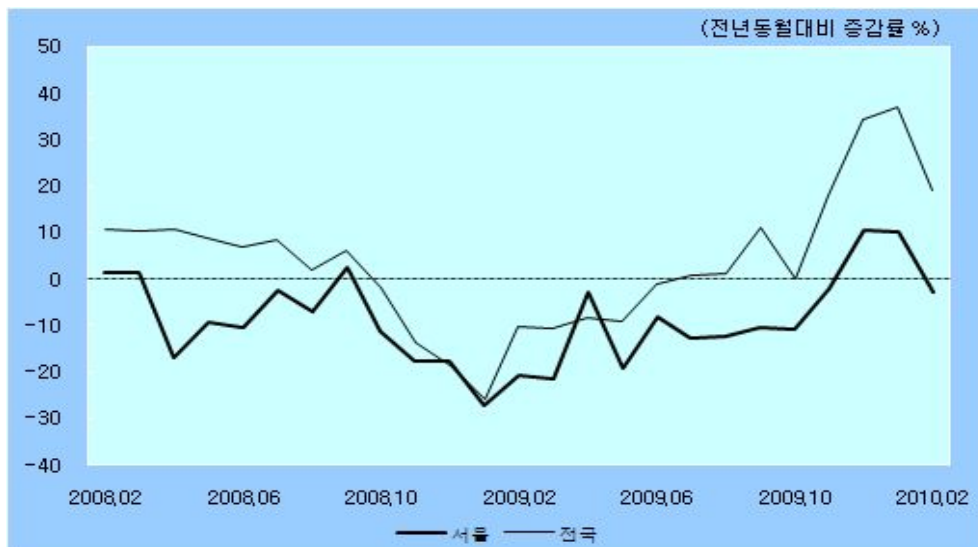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비, %)

구 분		2009년				2010년	
		2월	10월	11월	12월	1월p	2월p
전 년 동 월 비	서울 (제조업)	-20.9	-10.9	-2.1	10.7	10.1	-2.8
	중공업	-45.8	-20.5	-0.2	3.9	13.4	5.8
	경공업	-2.7	-6.2	-3.1	14.5	8.8	-6.3
	전국	-10.2	0.2	18.1	34.2	36.9	19.1

주: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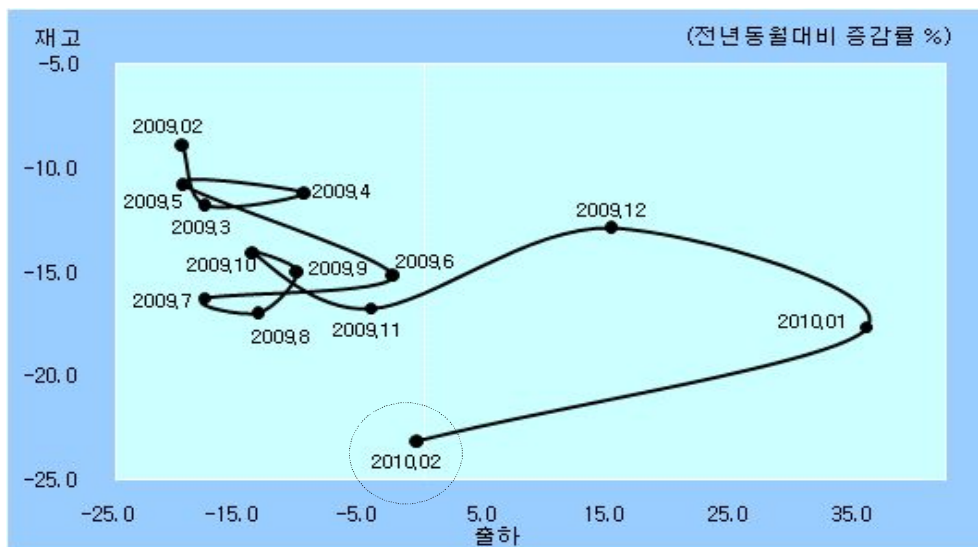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재고 순환 |

2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2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25.0로 전년동월대비 23.2% 감소
 - 업종별로는 식료품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0.3(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은 감소하였으나, 전기장비, 가스업 등에서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감소로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35.1% 증가, 부문별로 보면 중공업 감소, 경공업 증가

- 2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6.8%로 전월대비 4.6%p 증가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51.0%로 전월대비 35.1%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5.6%p 감소한 154.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47.6%p 증가한 145.1%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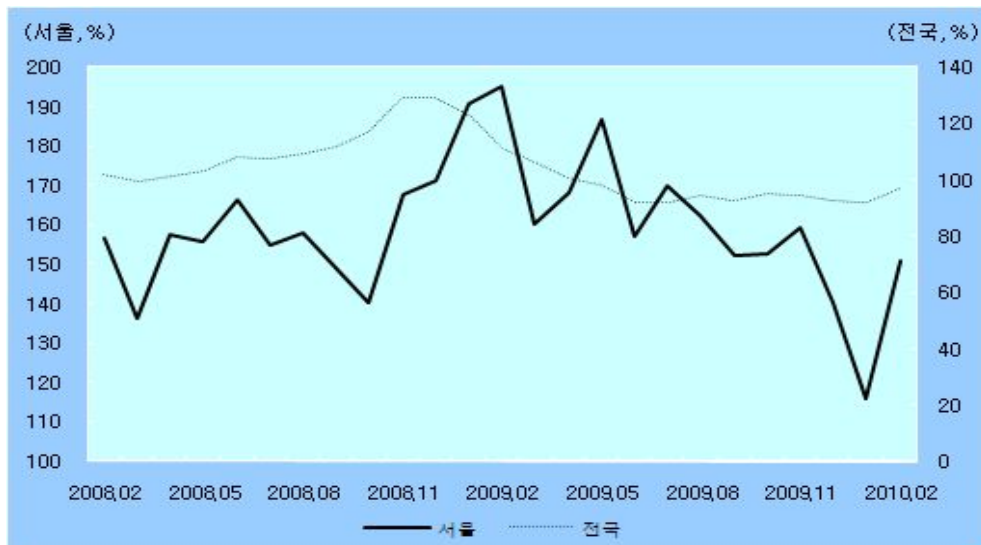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P	11월	12월p	1월p	2월p	
재고율	서울	195.2	152.5	159.4	140.5	115.8	151.0	35.1
	중공업	181.4	146.9	118.7	110.9	169.9	154.4	-15.6
	경공업	191.9	148.1	173.8	149.5	97.6	145.1	47.6
	전국	111.5	95	94.3	92.6	92.2	96.8	4.6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비 |

2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18.9% 증가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및 대형마트 16.9%, 21.7% 각각 증가

-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5,184억으로 전년동월대비 18.9% 증가
-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16.9% 증가, 대형마트 21.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백화점의 경우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역시 큰 폭으로 상승. 이는 설날 및 졸업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증가한 것이라 예측됨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27.0% 증가

- 전국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7,90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27.0% 증가함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7.3% 증가, 대형마트는 27.9% 증가함
- 유형별로는 승용차,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내구재가 21.3%, 오락, 의복 등의 준내구재 3.1%, 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12.4%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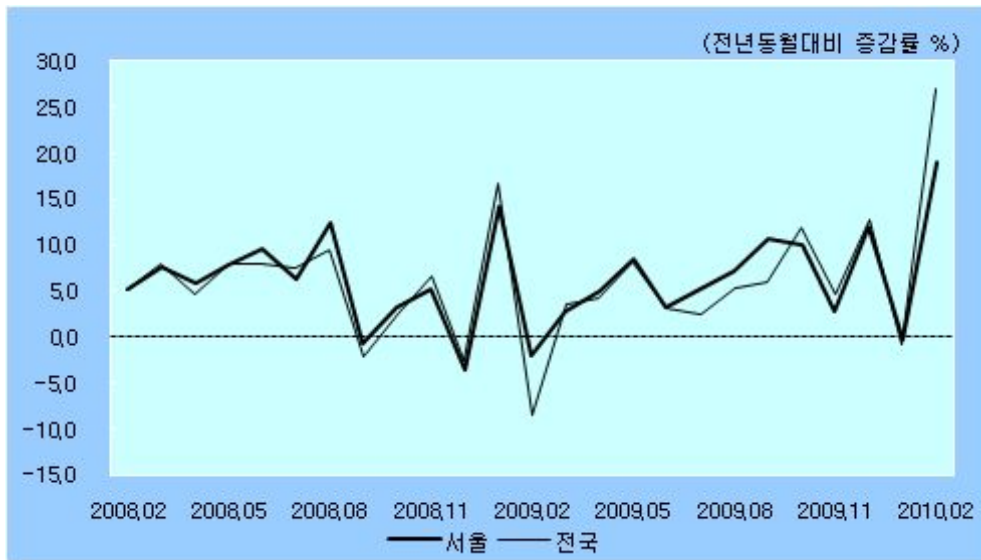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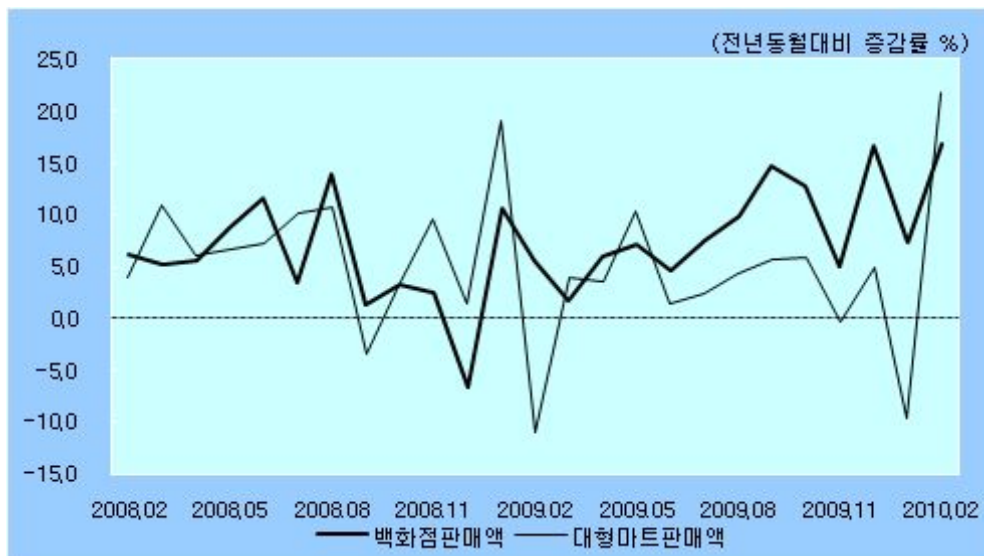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10년	
		2월	10월	11월	12월p	1월p	2월p
판매액	서울	1277.1 (-2.1)	1575.0 (10.0)	1585.3 (2.9)	1705.0 (11.9)	1580.7 (-0.2)	1518.4 (18.9)
	백화점	739.9 (5.5)	970.9 (12.7)	978.0 (5.1)	1,048.3 (16.7)	951.8 (7.3)	864.7 (16.9)
	대형마트 (할인점)	537.2 (-11.0)	604.1 (5.8)	607.3 (-0.4)	656.6 (4.9)	628.8 (-9.7)	653.6 (21.7)
	전국	3773.1 (-8.4)	4662.1 (11.8)	4654.9 (4.6)	5019.9 (12.8)	4747.8 (-0.9)	4790.2 (27.0)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가 |

2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 2월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 3개월째 보합

-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전도시:114.2, 2005년=100)로 전월대비 0.4%(전도시:0.4%)상승하여 3개월 연속 보합, 전년동월대비 2.6%(전도시:2.7%) 상승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7% 상승 전년동월대비 3.2%,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2.2% 각각 상승,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보합, 개인서비스는 전월 대비 0.5% 상승

■ 서울 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3.1% 각각 상승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도시:0.4%), 전년동월대비 3.3%(전도시:3.4%) 각각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1%(전도시:4.8%), 전년동월대비 6.0%(전도시:8.4%) 각각 상승

■ 전국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4개월째 상승

- 2월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로 전월대비 0.4%로 상승하여 11월 이후 4개월째 상승
- 생활물가지수 부문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8%, 전년동월대비 8.4% 각각 상승
- 16개 시도별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6개 시도 모두 평균 0.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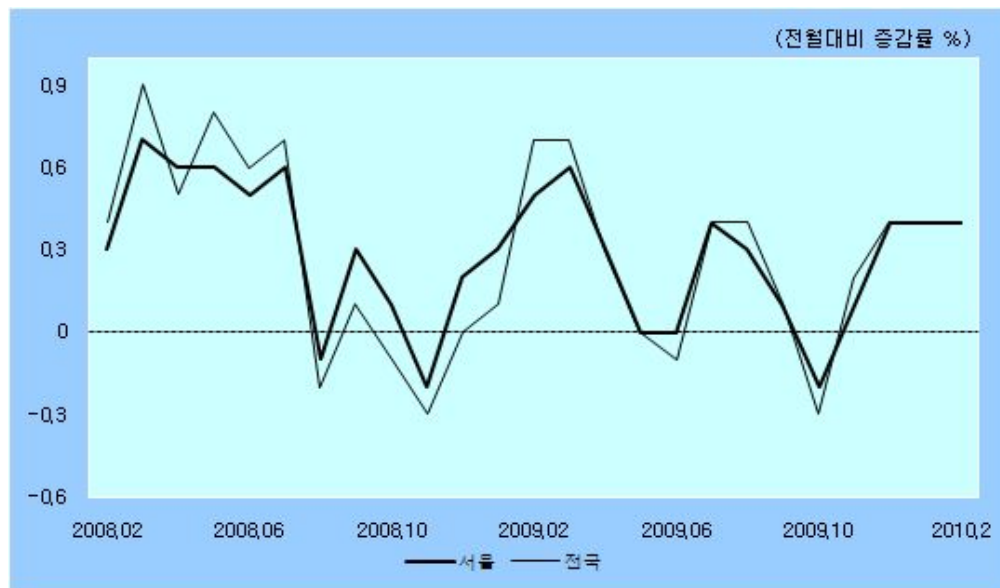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비	서울		0.5 (3.9)	0.1 (2.4)	-0.2 (2.2)	0.1 (2.5)	0.4 (2.6)	0.4 (2.7)	0.4 (2.6)
	상품 성질별	상품	1.2 (5.6)	0.2 (3.0)	-0.5 (2.5)	0.2 (3.8)	0.6 (4.2)	0.6 (4.2)	0.3 (3.3)
		서비스	0.2 (3.2)	0.0 (2.2)	0.0 (2.0)	0.1 (1.7)	0.2 (1.8)	0.3 (2.0)	0.4 (2.2)
	생활물가		0.5 (3.2)	0.2 (2.0)	-0.3 (2.0)	0.0 (2.4)	0.4 (3.2)	0.6 (3.4)	0.4 (3.3)
	신선식품		1.6 (2.1)	-1.6 (5.8)	-2.8 (5.0)	-3.3 (3.6)	5.0 (5.2)	6.5 (4.5)	3.1 (6.0)
	전국		0.7 (4.1)	0.1 (2.2)	-0.3 (2.0)	0.2 (2.4)	0.4 (2.8)	0.4 (3.1)	0.4 (2.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배추, 무, 파, 마늘 등 청과류 전월대비 가격상승, 수산 및 축산품 가격하락

- 소비자들의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의 전월대비 가격동향은 청과류의 경우 평균 25.4%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수산, 양곡, 축산은 평균 1.24% 가격하락
- 청과류 중 배추 가격은 전월대비 32.89%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그 외 무(25.47%), 파(30.04%), 마늘(7.79%) 가격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꽃샘 추위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양곡류인 쌀은 4.12% 하락, 축산품 중 쇠고기는 2.30% 하락, 돼지고기는 1.78% 상승. 수산 물인 멸치와 고등어는 0.70%, 0.85%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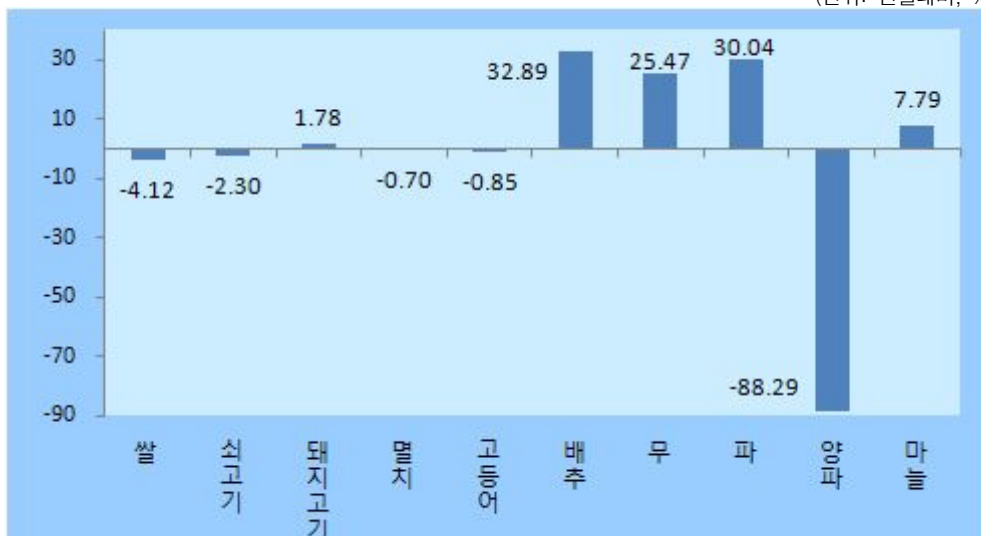
〈표〉 신선식품 가격동향

(단위: 전월비, 원, %)

구분		1월	2월	증감율
양곡	쌀	50,500	48,500	-4.12
축산	쇠고기	17,929	17,526	-2.30
	돼지고기	3,593	3,658	1.78
수산	멸치	14,167	14,068	-0.70
	고등어	16,434	16,295	-0.85
청과	배추	3,773	5,622	32.89
	무	4,703	6,310	25.47
	파	1,027	1,468	30.04
	양파	1,286	683	-88.29
	마늘	7,469	8,100	7.79

주: 52개 생활필수품목 중 신선식품만 선별하여 가격동향을 살펴보았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단위: 전월대비, %)



주: 쇠고기(한우지육 1kg), 돼지고기(돈육거세 1kg), 멸치(건중멸치 보통), 고등어 (10kg 상자보통), 배추(10kg그물망 보통), 무(18kg 포태 보통), 파(대파1kg 보통), 양파 (1kg 보통), 마늘(1kg 보통) 기준
 <그림> 서울시 농수산물 시장의 월간 등락품목

| 경·제·활·동·인·구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0%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0%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2월 15세 이상인구는 8,3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천명(0.8%)이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5,10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2.2%)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남자는 72.4% 여자는 50.2%로 나타남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천명(-1.4%)이 감소

■ 2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국 2월 15세 이상인구는 40,4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0천명(1.3%)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0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9천명(1.6%)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4,192천명으로 218명(1.6%)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9,843천명으로 151천명(1.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서울	-2.0 (-1.3)	-1.7 (0.1)	-1.2 (0.3)	0.1 (1.2)	0.7 (-0.2)	0.7 (0.1)	2.2 (0.2)
	남자	-1.2 (-0.9)	-1.6 (-0.2)	-1.2 (0.2)	0.1 (1.5)	1.0 (-0.2)	0.7 (0.0)	1.5 (-0.1)
	여자	-3.1 (-1.7)	-1.8 (0.5)	-1.2 (0.5)	0.0 (0.8)	0.4 (-0.1)	0.8 (0.2)	3.2 (0.6)
	전국	-0.2 (-0.2)	0.7 (0.4)	0.3 (0.1)	0.2 (-0.1)	0.1 (-2.3)	1.6 (0.1)	1.6 (-0.2)
경제활동참가율	서울	60.1	60.2	60.4	61.1	60.9	60.9	61.0
	남자	71.8	71.6	71.7	72.8	72.6	72.5	72.4
	여자	49.1	49.4	49.6	50.0	49.9	49.9	50.2
	전국	59.3	61.3	61.3	61.1	59.7	59.6	59.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취·업·자 |

2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1.2% 증가

■ 2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60천명 증가하여 플러스로 반등

- 서울의 취업자는 4,80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1.3%)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50천명, 여자는 2,0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25천명(0.9%) 이, 여자는 35천명(1.7%)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32.1%), 전가운수통산금융업 49천명(6.6%), 도소매음식숙박업 43천명(3.2%), 제조업 2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고, 사업개안·공공서비스업은 보합을 나타냈으며, 건설업 33천명(-9.3%)이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1%로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0.4%) 1.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7% 상승하여 꾸준히 플러스 증가세를 이어감

■ 전국의 2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25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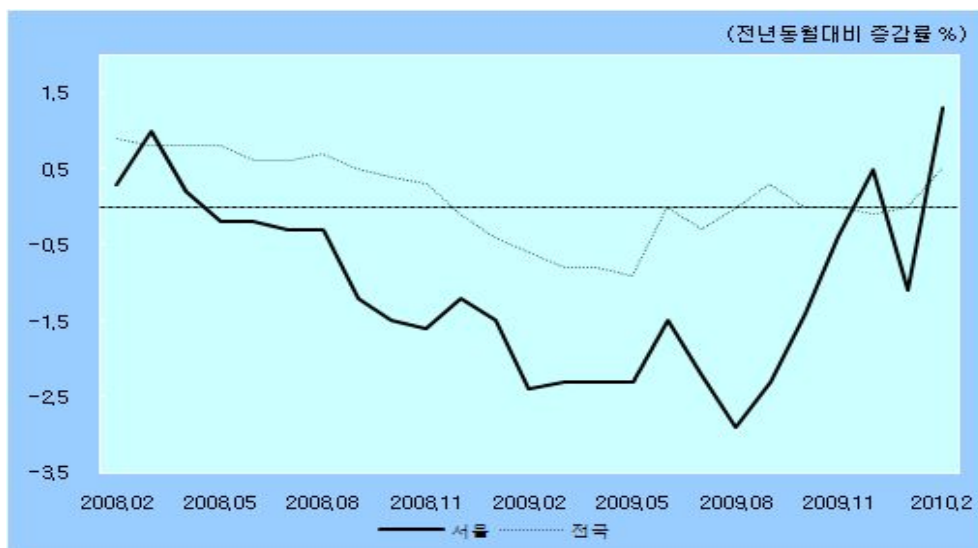
- 전국의 2월 취업자는 23,8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5천명(0.5%)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4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6천명(0.9%) 증가하였고, 여자는 9,384천명으로 9천명(0.1%) 증가, 여성 취업자의 경우 플러스로 반등
- 연령계층별로 보면 15~19세, 50대는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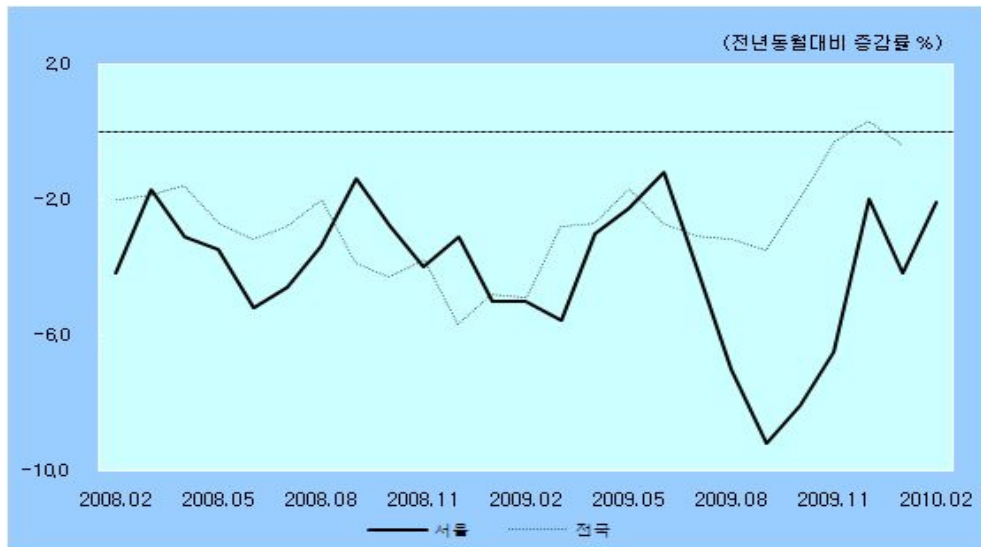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취업자	서울	-2.4 (-2.0)	-2.3 (0.3)	-1.4 (0.8)	-0.4 (0.8)	0.5 (0.0)	-1.1 (-1.9)	1.3 (0.4)
	남자	-2.2 (-1.7)	-2.6 (0.0)	-1.3 (1.0)	0.0 (1.1)	1.4 (0.1)	-0.9 (-2.4)	0.9 (0.1)
	여자	-2.8 (-2.3)	-2.0 (0.8)	-1.5 (0.4)	-0.9 (0.4)	-0.7 (-0.2)	-1.4 (-1.3)	1.7 (0.8)
	전국	-0.6 (-0.5)	0.3 (0.8)	0.0 (0.2)	0.0 (-0.2)	-0.1 (-2.4)	0.0 (-1.6)	0.5 (0.0)
청년층 취업자	서울	-5.0 (-3.2)	-9.2 (-3.3)	-8.1 (-0.9)	-6.5 (1.6)	-2.0 (2.5)	-4.2 (-0.7)	-2.1 (-1.1)
	전국	-4.8 (-1.6)	-3.2 (-1.9)	-3.5 (-0.9)	-2.0 (1.7)	-0.3 (0.6)	0.3 (1.1)	-0.4 (-2.3)
고령층 취업자	서울	-2.3 (-2.2)	5.7 (3.7)	9.4 (3.2)	13.1 (0.8)	13.5 (-2.2)	3.8 (-10.1)	6.7 (0.6)
	전국	0.6 (0.0)	4.1 (2.0)	4.4 (0.5)	1.3 (-4.2)	-1.9 (-14.0)	-4.5 (-8.0)	-1.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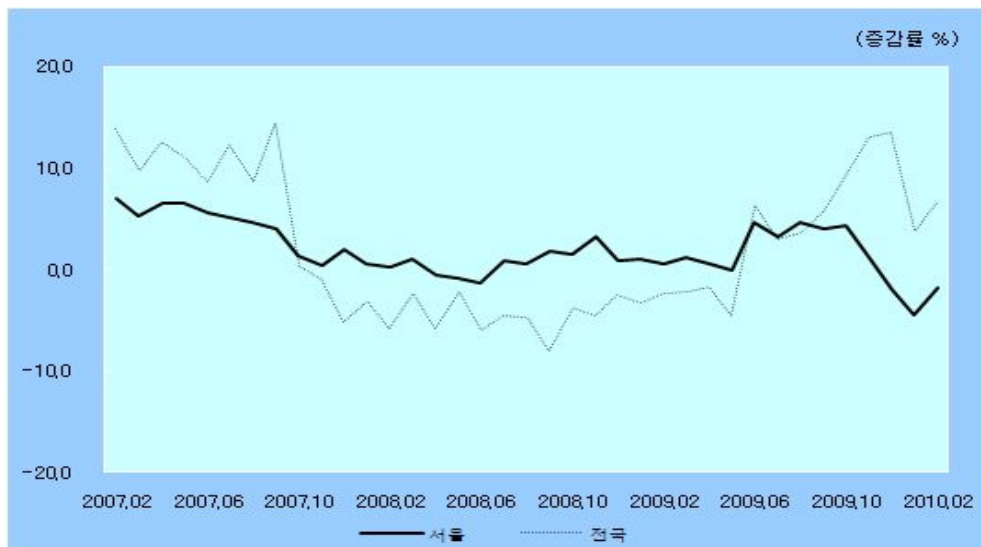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사무종사자 등은 증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등은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42천명(3.4%), 사무종사자 20천명(2.4%), 서비스·판매종사자 8천명(0.6%)이 각각 증가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1.6%), 전문·기술·행정관리자 9천명(-0.7%)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2.9%,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221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58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4천명(2.9%)이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도 25천명(0.7%)이 증가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29천명(2.8%), 무급가족종사자는 5천명(3.2%)이 각각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76천명(3.9%), 임시근로자 32천명(2.9%)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 83천명(-17.3%)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36시간 이상 취업자 215.8%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 26.6%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6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18천명(215.8%)이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2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98천명(-26.6%)이 감소
 - 36시간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4천명(41.8%)이 증가하였고, 18~35시간 취업자도 1,044천명(306.6%)이 증가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49천명(-12.8%)이 감소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750천명(-53.5%)이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산업별	제조업	-14.4	-21.7	-17.5	-6.6	-4.9	-7.5	0.3
		-5.8	-1.1	0.9	1.2	1.1	0.1	2.1
	SOC 및 기타서비스업	-0.7	0.4	0.9	0.4	1.2	-0.3	1.4
		-1.5	0.5	0.8	0.8	-0.2	-2.1	0.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5.3	4.0	3.6	2.1	1.2	-1.0	0.0
		0.8	-0.5	1.1	0.1	-1.5	-4.0	1.7
	도소매·음식숙박	-3.3	0.6	1.1	3.0	2.4	3.0	3.2
		-1.5	1.5	0.1	1.5	0.9	-0.5	-1.2
	전기·운수·통신·금융	-2.0	3.7	3.5	1.2	5.2	2.8	6.6
		-3.4	1.2	1.1	0.5	2.0	1.0	0.3
	건설업	-14.8	-20.1	-16.2	-15.8	-10.6	-14.6	-9.3
		-8.1	0.4	1.3	2.4	-2.0	-5.9	-2.4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7	1.6	3.7	2.4	2.0	1.2	-0.7
		1.2	0.1	-0.2	0.2	-0.5	-1.1	-0.6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10.3	-11.9	-9.0	-3.3	-1.9	-4.9	3.4
		-5.1	-0.1	3.4	2.4	-1.8	-4.7	3.3
	서비스·판매종사자	-2.3	-0.8	0.1	-2.5	-1.2	-0.4	0.6
		-2.8	0.6	1.8	-0.7	0.6	1.2	-1.8
	사무종사자	3.7	4.9	1.1	3.3	4.5	-0.1	2.4
		-1.2	1.0	-2.9	1.7	2.5	-3.6	1.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1	-2.0	-0.8	0.3	0.8	-2.3	0.7
		-2.4	0.5	0.9	1.0	-0.2	-3.0	0.7
	비임금근로자	-6.1	-3.2	-3.1	-2.4	-0.4	2.6	2.9
		-0.7	-0.3	0.3	0.2	0.5	1.4	-0.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실·업·률 |

2월 서울의 실업률 0.9%p, 고용률은 0.2%p 각각 상승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5.8% 상승, 전국(4.9%)대비 0.9%p 높은 수준

- 2월 실업자는 29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2천명(21.3%)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천명(11.7%), 여자는 107천명으로 33천명(43.9%)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5.8%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5%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자는 4.9%로 1.4%p 각각 상승

■ 전국의 실업률 4.9% 상승하였으며,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전국의 2월 실업자는 1,16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4천명(26.4%) 증가
- 성별로 보면 실업자는 남자가 70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16.7%) 증가하였고, 여자는 4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3천명(45.1%) 증가
- 실업률은 4.9%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자는 4.7%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60세 이상 2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실업률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서울의 고용률 57.4%로 전국의 고용률(56.6%)보다 0.8%p 높은 수준

-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7%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자는 47.4%로 0.4%p 각각 상승
- 서울의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6.6%)에 비해 0.8%p 높은 수준임
- 전국의 2월 고용률은 56.6%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2%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45.4%로 0.6%p 하락,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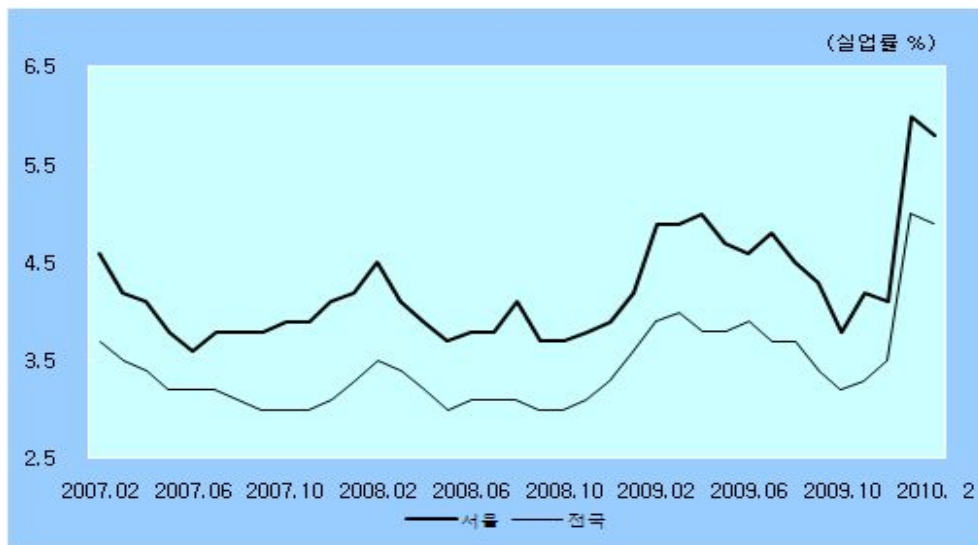
〈표〉 서울의 실업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업률	서울	4.9	4.3	3.8	4.2	4.1	6.0	5.8
	남자	5.9	5.1	4.3	4.7	4.4	6.7	6.5
	여자	3.5	3.2	3.2	3.6	3.6	5.1	4.9
	전국	3.9	3.4	3.2	3.3	3.5	5.0	4.9

		2008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년층 실업률	서울	7.8	7.5	7.0	8.9	7.8	8.4	7.8
	전국	7.4	6.9	7.0	8.6	8.0	8.1	7.6
고령층 실업률	서울	2.2	1.0	1.2	2.0	3.2	2.0	1.7
	전국	1.2	1.0	1.1	1.6	1.9	1.6	1.5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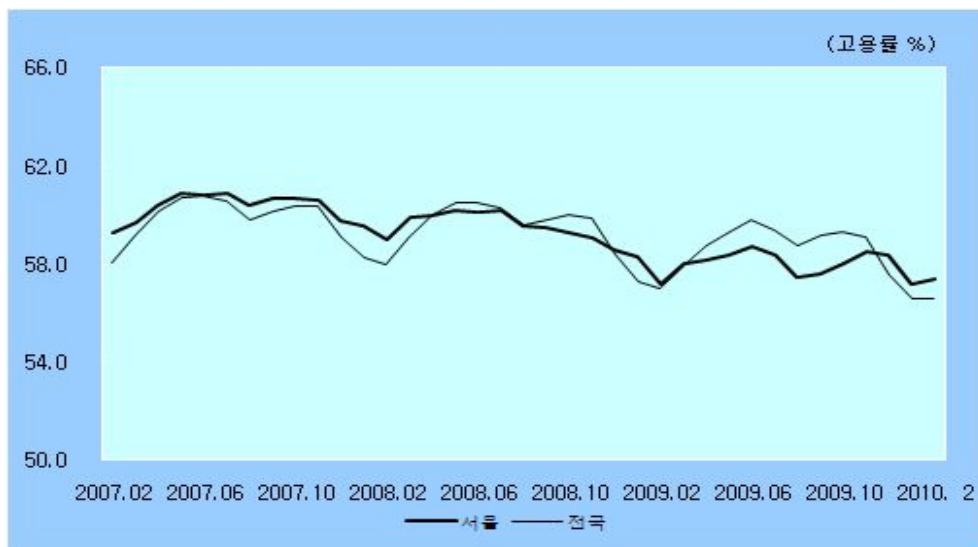
〈표〉 서울의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고용률	서울	57.2	57.6	58.0	58.5	58.4	57.2	57.4
	남자	67.5	68	68.7	69.4	69.4	67.6	67.7
	여자	47.3	47.8	48	48.2	48.1	47.4	47.7
	전국	57.0	59.2	59.3	59.1	57.6	56.6	56.6

		2008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청년층 고용률	서울	41.9	41.8	40.6	39.9	41.1	40.7	40.1
	전국	38.9	38.7	37.2	33.2	38.3	38.9	36.4
고령층 고용률	서울	46.4	46.6	44.9	43.9	45.6	43.8	42.8
	전국	31.4	31.0	30.1	28.7	30.3	31.1	32.5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60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고용률 추이

| 건·설·경·기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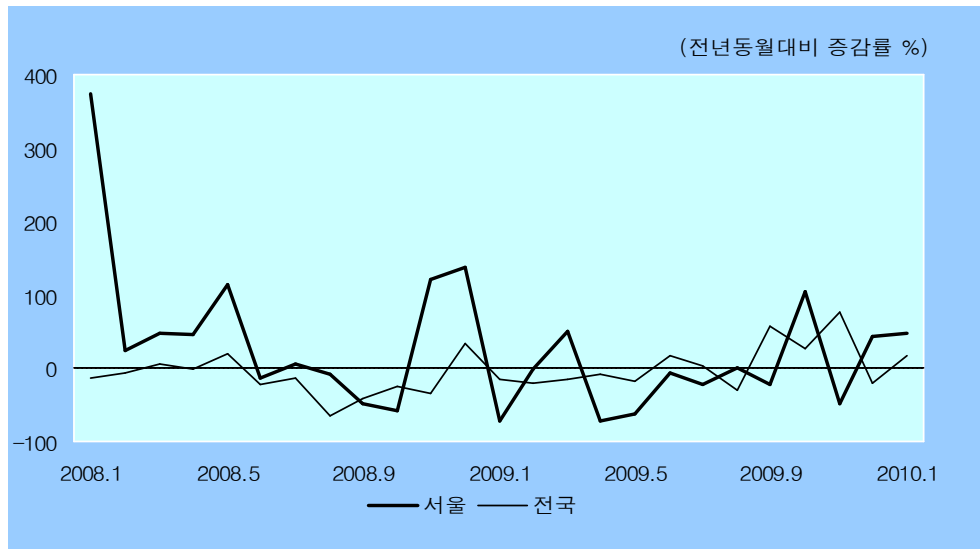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9,33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4%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6조 6,42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14.1%를 차지
- 공공부문에서는 전년 신규주택 및 도로공사 수주가 많았으나, 금년에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60.2% 감소. 민간부문에서는 신규주택 및 재건축주택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대비 116.0% 증가
- 공종별로는 전년대비 건축부문은 57.8% 증가하였으나 토목부문은 2.9%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		633	840	1,925	1,585	5,357	933	47.4	-82.6
발주 자별	공공	273	278	229	512	1089	109	-60.2	-90.0
	민간	360	400	1,679	1,061	4,247	778	116.0	-81.7
공종 별	건축	525	487	1,715	1,095	4,627	828	57.8	-82.1
	토목	108	352	210	490	730	105	-2.9	-85.6
전국		5,674	8,741	10,415	14,425	17,611	6,643	17.1	-62.3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주·택·매·매·가·격 |

서울 강북지역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강남지역 상승폭 확대

■ 2월 서울 강북지역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강남지역 상승폭 확대

- 서울 강북지역(0.1%)에서는 강북구(0.5%), 광진구(0.5%), 마포구(0.4%), 서대문구(0.3%) 순으로 상승함
- 강남지역(0.3%)에서는 서초구(0.8%), 강동구(0.7%), 강남구(0.6%), 영등포구(0.4%)가 상승을 주도함

■ 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장기평균(0.7%)을 하회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 상승하며 4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연립주택(0.2%)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단독주택(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지속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서울		99.2	102.8	103.0	3.8	0.2
아파트		98.9	102.7	102.9	4.1	0.3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2	102.0	102.2	3.0	0.1
	강남	99.2	103.5	103.9	4.7	0.3
전 국		99.2	101.6	101.9	2.7	0.3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

- 강북지역(0.1%)에서 강북구(0.5%)는 경전철 착공 이후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수유동 일대 단독 및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였고, 광진구(0.5%)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연립주택으로 전이되면서 동반 상승함
- 마포구(0.4%)는 망원동 일대 유도정비구역의 단독 및 연립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함

■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확대

- 강남지역(0.3%)에서는 서초구(0.8%)가 “반포·잠원지구 수변도시 개발” 호재로 신반포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사업 가시화가 맞물리면서 잠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함
- 강동구(0.7%)는 지하철 9호선 연장 호재와 재건축 사업 가시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세의 매매전환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함
- 강남구(0.6%)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수요가 역세권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방학을 이용한 학군수요가 맞물리면서 상승함

■ 2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2월 26일 기준)은 1,847.68만원으로 전월(1,844.35만원) 대비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04만원), 서초구(2,852만원), 용산구(2,589만원), 송파구(2,500만원), 양천구(2,016만원), 강동구(1,942만원), 광진구(1,882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34만원), 강북구(1,139만원), 중랑구(1,141만원), 도봉구(1,159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주·택·전·세·가·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강남과 강북지역 모두 상승세 확대

■ 강남과 강북지역 하락한 지역없이 상승폭 확대

- 강북지역(0.6%)에서는 광진구(1.9%), 용산구(1.2%), 서대문구(1.0%)를 중심으로 상승
- 광진구가 강남권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유입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학군수요가 맞물리면서 광장동, 자양동, 구의동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함
- 용산구(1.2%)는 기존세입자의 재계약 유지 등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봄 이사철 수요 증가로 한남동과 원효로 일대를 중심으로 상승함
- 강남지역(0.9%)에서는 영등포구(1.7%), 서초구(1.7%), 강남구(1.5%), 송파구(1.4%), 강동구(1.1%)가 상승을 주도함
- 영등포구(1.7%)는 도심 및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맞벌이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도림 제16구역 재개발 이주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함
- 서초구(1.7%)도 겨울방학 학군수요 유입과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됨
- 강남구(1.5%)는 방학을 이용한 학군수요 증가와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증가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1.0%로 전월(40.7%)보다 0.3%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10월 40.0% → 11월 40.4% → 12월 40.6% → 2010년 1월 40.7%)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월 전국 평균 54.3%보다 13.3%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3%p)과 같은 수준을 유지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3.5%, 강남 38.8%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4.7%p이며 지난 달(4.7%p)과 같은 수준임.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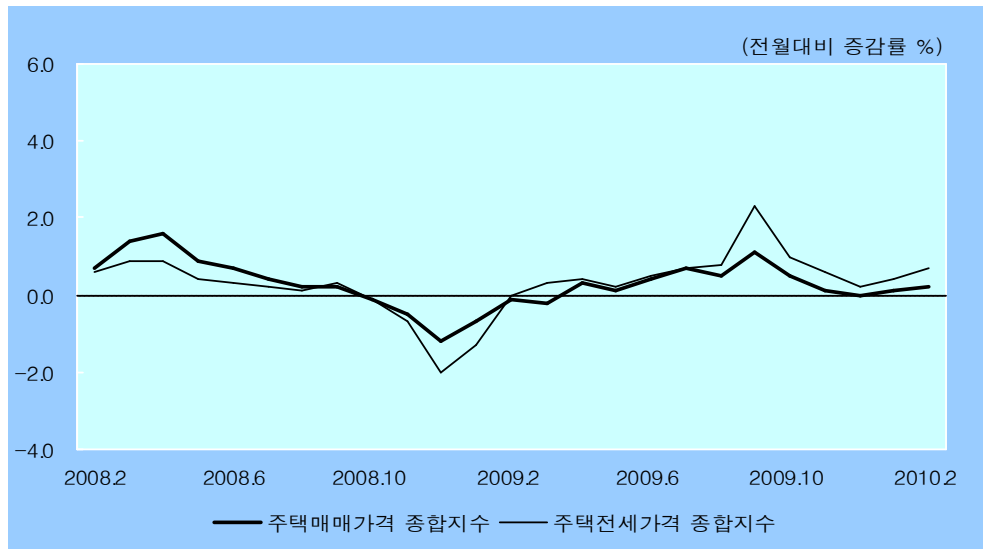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서울		98.7	106.4	107.1	8.5	0.7
아파트		98.5	108.7	109.8	11.4	1.0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8.7	104.1	104.7	6.1	0.6
	강남	98.8	108.6	109.5	10.9	0.9
전국		98.8	103.7	104.3	5.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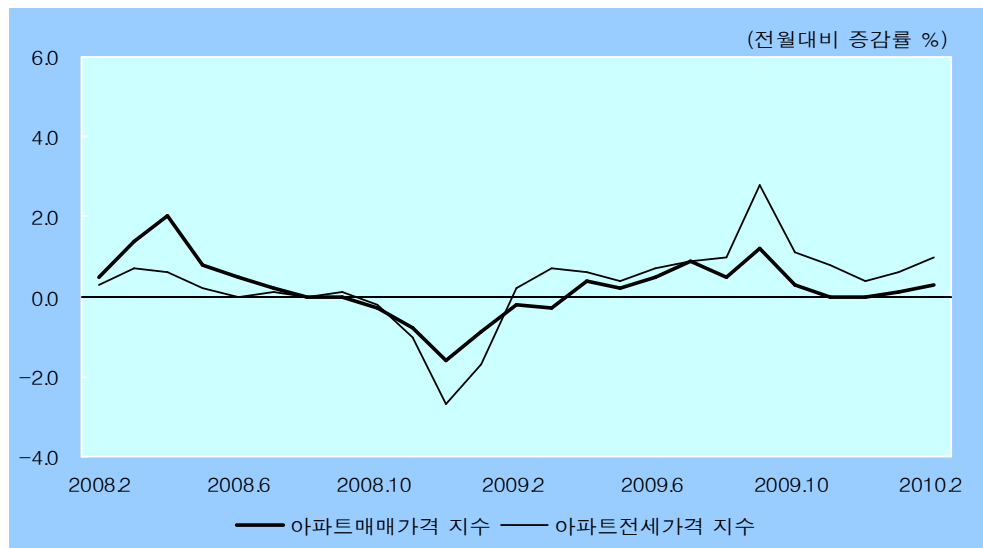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률 매매가격 상승률을 지속적으로 상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대비 0.6% 상승하며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수도권(0.5%)은 학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고, 광역시(0.8%)와 기타지방(0.4%)도 상승세가 확대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9%, 0.3% 상승하며 아파트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단독주택(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중·자·금·사·정 |

회사채 금리 큰 폭 하락

금리

■ 국고채 금리 상당폭 하락

- 국고채(3년)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
- 은행들이 예대율 인하 등을 위해 적극 유치한 정기예금으로 채권투자를 확대한 것도 금리하락 요인으로 작용

■ 회사채 금리 큰 폭 하락

- 회사채(3년) 금리는 은행채 발행 저조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국고채 금리보다 큰 폭 하락
- CD(91일) 금리는 2.88%를 유지하다가 3월 들어 소폭 하락

주가

■ KOSPI 지수 반등

- 코스피지수는 2월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1,553p(2.8일)까지 낮아진 후 그리스 재정 위기 우려 완화, 저가매수자금 유입에 힘입어 반등
(09년 12월말 1,683p → 2010년 1월말 1,602p → 2월말 1,595p → 3.9일 1,661p)

■ 2월중 외국인 소폭 순매도

- 외국인은 2월중 국내주식을 소폭 순매도(-196억원)하였으나 2월 하반기 이후에는 순매수를 지속
외국인 순매수(조원): 9월 5.1 조원 → 10월 1.6조원 → 11월 2.0조원 → 12월 2.3조원
→ 2010년 1월 0.7조원 → 2월 -0.0조원 → 3.1일~9일 1.5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간 중 평균, 단위: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금리	국고채(3년)	3.78	4.47	4.32	4.24	4.29	4.19	-0.10
	CD(91일물)	2.7	2.79	2.79	2.82	2.88	2.88	0.00
	콜금리(1일)	2.06	1.99	2.00	2.00	2.00	2.00	0.00
	장단기 금리차 ¹⁾	1.08	1.68	1.53	1.42	1.41	1.31	-0.10
주가	KOSPI	1,139.75	1630.61	1583.47	1646.64	1682.16	1598.96	-83.20
	KOSDAQ	377.44	501.83	477.15	498.35	535.44	505.32	-30.12
환율 (₩/US\$)		1440.19	1,174.80	1,163.18	1,166.13	1,138.77	1,156.83	18.06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2월중 은행 가계대출 감소규모 축소

-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계절적 비수기,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주택구입수요 이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같은 1.3조원 증가에 그침
-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연초 상여금 지급, 소득세 환급 등으로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그 규모는 축소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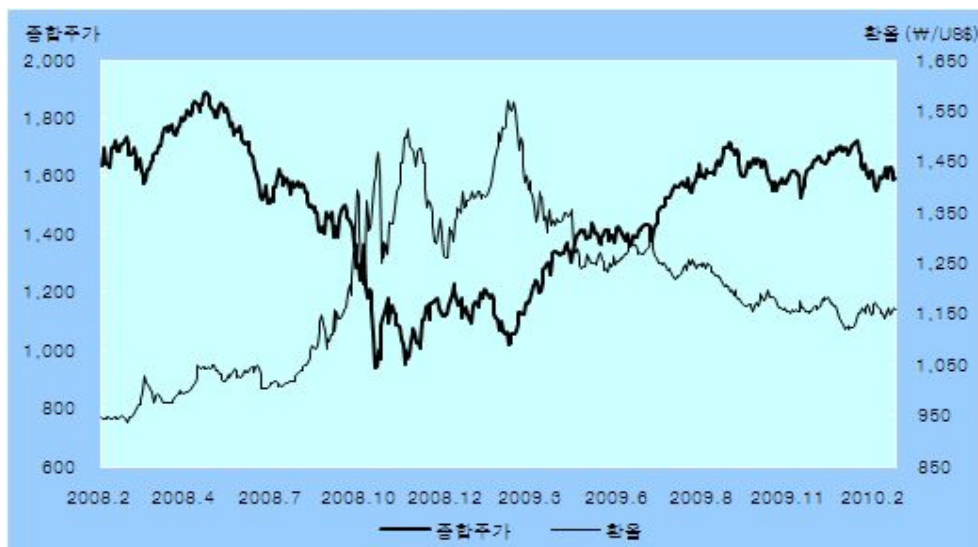
구 분	2009년	2009년			2010년		월말잔액		
	연중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010년		전월대비 증감률
							1월	2월	
가계대출 ¹⁾	20.1	1.4	2.6	0.5	-1.0	-0.2	407.6	407.3	-0.07
주택담보대출 ²⁾	25.4	1.4	1.6	2.0	0.6	0.7	265.7	265.5	-0.08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4.5	0.0	1.0	-1.5	-1.6	-0.9	140.7	140.7	0.00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6조 7,201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499억원 (0.09%) 증가
- 1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62조 1,262억원으로 전월대비 7,759억원 (0.06%)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9년				2010년	전월대비 증감액	전월대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서울	예금은행	410,284.80	418,169.7	419,997.6	413,183.5	414,043.1	859.6	0.21
	비은행기관	87,824.70	91,231.5	91,067.5	93,086.7	92,677.0	-409.7	-0.44
	합계	498,109.50	509,401.2	511,065.1	506,270.2	506,720.1	449.9	0.09
전국	예금은행	921,674.40	958,048.5	963,885.1	953,505.2	955,782.2	2,277.0	0.24
	비은행기관	284,912.60	300,619.2	302,212.0	307,845.1	306,344.0	106,198.0	34.50
	합계	1,206,587.00	1,258,667.7	1,266,097.1	1,261,350.3	1,262,126.2	775.9	0.06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신·설·법·인·동·향 |

1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12개로 전월대비 8.1%(159개)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는 51.6%(617개) 증가
- 1월 전국의 신설법인은 5,335개로 전월비로는 소폭(1.6%, 89개)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비 45.6%(1,671개) 증가하여 2009년 6월부터 8개월 연속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서울 모든 업종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중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5.1%(423개) 증가, 제조업 48.2%(93개) 증가하였고, 건설 및 설비업은 138.1%(8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건설 및 설비업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서울	1,195	1,704	1,764	1,971	1,812	-159	-8.1	617	51.6
서비스업	937	1,330	1,353	1,511	1,360	-151	-10.0	423	45.1
제조업	193	246	275	315	286	-29	-9.2	93	48.2
건설 및 설비업	63	122	129	132	150	18	13.6	87	138.1
전국	3,664	4,540	4,690	5,424	5,335	-89	-1.6	1,671	45.6

자료: 중소기업청

| 어·음·부·도·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 서울의 어음부도율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신설/부도법인 배율 상승

- 1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전국의 어음부도율도 0.03%로서 전월과 같은 수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51개로 전월대비 17.7%(11개) 하락, 전국의 부도업체수는 141개로 전월대비 7.2%(11개) 하락한 수준
-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1.8배로 전월(39.4배)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전국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1.8배로 전월(49.3배)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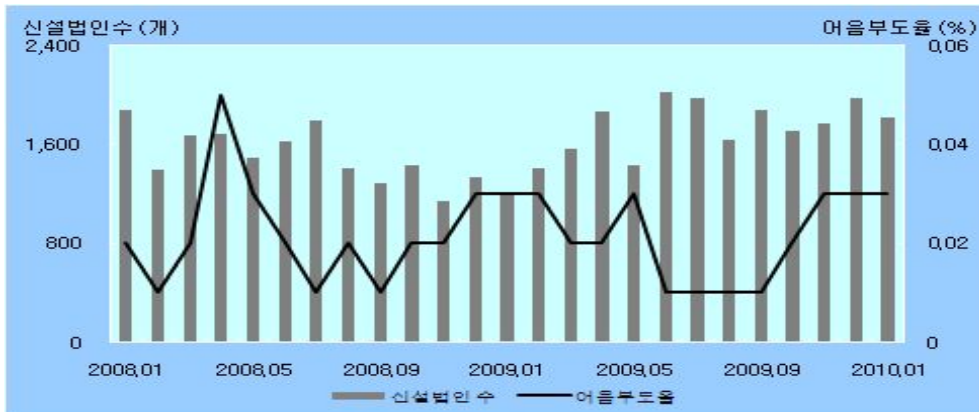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9년				2010년	전월비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서울	어음부도율	0.03	0.02	0.03	0.03	0.03	0	0.0
	부도업체 수	104	43	43	62	51	-11	-17.7
	신설/부도법인배율	14.9	81.1	50.4	39.4	51.8	12.4	-
전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4	0.03	0.03	0	0.0
	부도업체 수	262	124	135	152	141	-11	-7.2
	신설/부도법인배율	19.9	52.2	52.1	49.3	51.8	2.5	-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신용보증 공급건수 및 공급금액 대폭증가

■ 보증 건수 및 금액 전월대비 대폭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2월중 3,988건, 70,393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99.7%, 금액은 186.4%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여파가 강했던 전년 동월대비하여서는 건수 기준 -16.0%, 금액 기준 -29.1%의 감소세를 나타냈음
- 전월대비한 급격한 증가는 지난 1월 29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공고로 인하여 대기자금수요 및 체감경기회복둔화로 인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청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임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9년	2009				2010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4,749	5,197	4,187	3,577	1,997	3,988	1,991	99.7	-761	-16.0	
금액	99,315	71,127	61,133	51,605	24,582	70,393	45,811	186.4	-28,9	-29.1	
건당평균금액	20.9	13.7	14.6	14.4	12.3	17.6	5.3	43.1	-3.3	-15.8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 및 기타업종 비중 증가

- 2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에서 전월대비 건수 기준시 도·소매업(27.94% → 34.38%), 기타업종(6.71% → 28.13%)으로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금액 기준시 도·소매업(33.51% → 38.10%), 기타업종(6.71% → 28.13%)으로 비중이 증가하였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225	1,371	653	617	1,122	3,988
비율	5.64	34.38	16.37	15.47	28.13	100
금액	4,957	26,820	13,167	11,261	14,191	70,396
비율	7.04	38.10	18.70	16.00	20.16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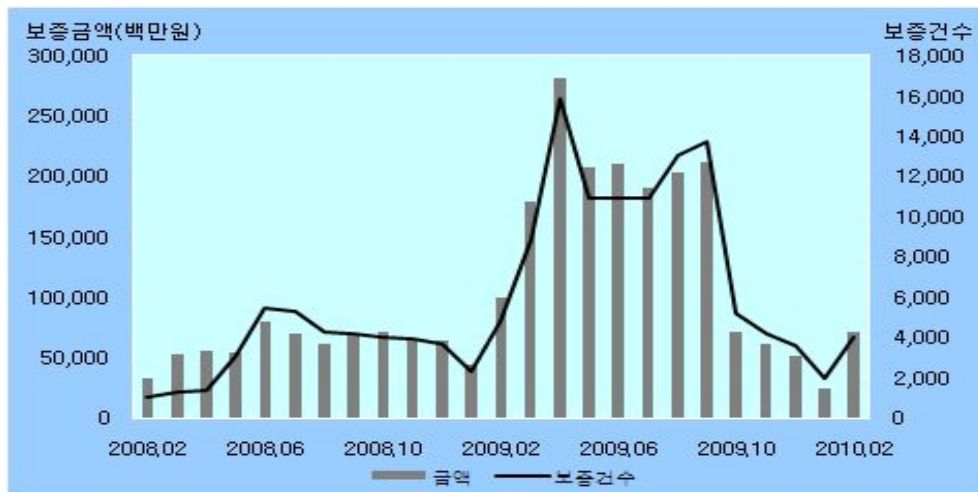
- 2월 기준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은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 없이 건수는 99.6%, 금액은 96.9%를 차지하고 있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12	2010.1	2010.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3,461	1,967	3,894	1,927
	비율	96.8	97.6	97.6	0.0
	금액	43,322	22,419	66,482	44,063
	비율	83.9	94.4	94.4	0.0
소기업	건수	81	21	70	49
	비율	2.3	1.8	1.8	0.0
	금액	5,802	1,402	2,779	1,377
	비율	11.2	3.9	3.9	0.0
중기업	건수	35	9	24	15
	비율	0.9	0.6	0.6	0.0
	금액	2,483	762	1,134	372
	비율	4.9	1.6	1.6	0.0
합계	건수	3,577	1,997	3,988	1,991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1,605	24,583	70,396	45,81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월 서울의 수출은 30.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6.5% 증가하였고, 수입은 72.8억달러로 30.5% 증가
- 2월 전국의 수출은 331.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0.5% 증가하였고, 수입은 310.6억달러로 37.5% 증가. 무역수지는 20.8억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전국의 수출입은 1월대비 선박·승용차·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한 반면,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액 감소로 한달만에 흑자로 전환

■ 2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330,501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컴퓨터,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가장 많아 759,048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반도체, 컴퓨터, 의류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로 전년동월대비 749.7% 증가하였고,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으로 전년동월대비 309.8% 증가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동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서울	수출	2,221	3,172	3,338	3,561	3,111	3,031	810	36.5
	수입	5,142	6,682	6,802	7,273	7,237	7,277	2,135	41.5
전국	수출	25,397	33,957	34,075	36,010	31,007	33,138	7,741	30.5
	수입	22,598	30,326	29,457	32,920	31,468	31,062	8,464	37.5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2월		2010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8,898	15.3	330,501	749.7
2	자동차부품	95,107	12.9	199,454	109.7
3	컴퓨터	102,408	0.6	180,928	76.7
4	합성수지	88,034	19.6	167,183	89.9
5	반도체	100,529	-0.9	164,878	64
6	편직물	135,970	-21.8	155,585	14.4
7	고무제품	88,961	-6.4	124,315	39.7
8	무선통신기기	143,313	-1.8	104,915	-26.8
9	합성고무	24,978	2.8	103,487	314.3
10	의류	65,111	-23.8	66,030	1.4
합계		2,221,319	-23.7	3,031,480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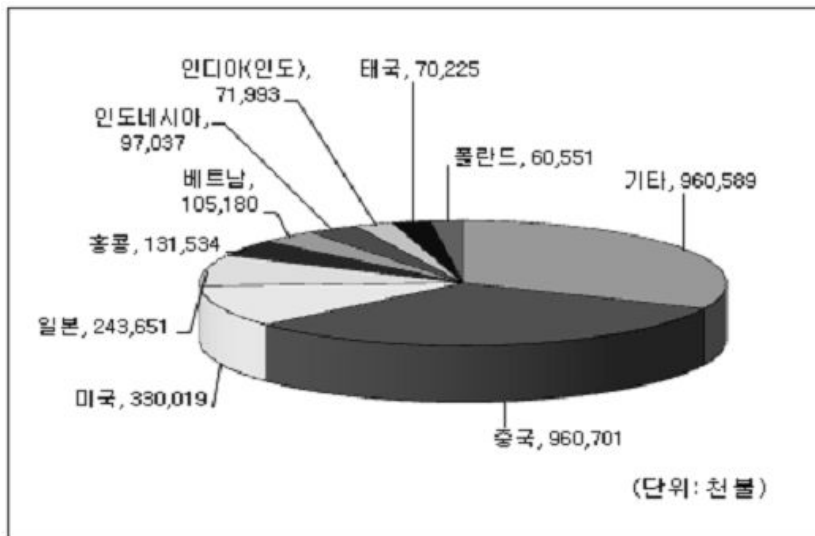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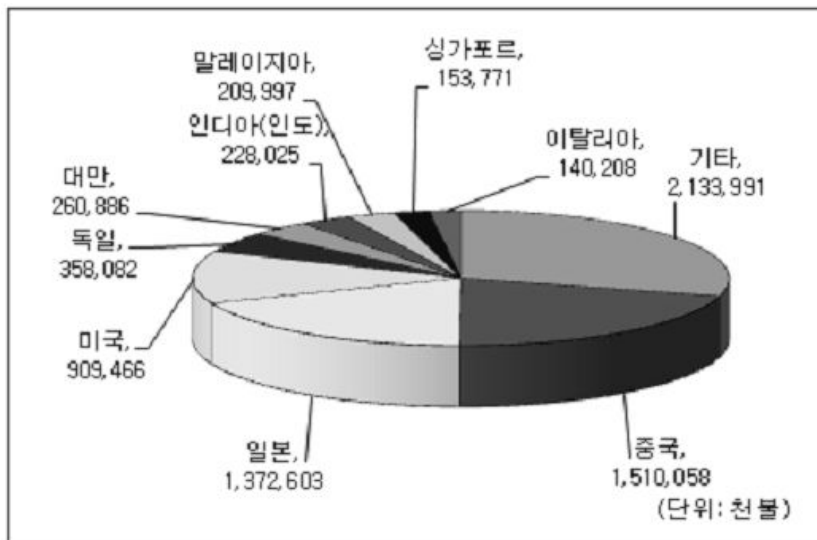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9년 2월		2010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85,230	317.7	759,048	309.8
2	반도체	503,456	17.7	583,039	15.8
3	컴퓨터	346,727	-16.4	415,620	19.9
4	의류	160,710	-12.8	222,366	38.4
5	자동차	97,218	-17.2	194,267	99.8
6	플라스틱제품	124,619	76.4	193,732	55.5
7	농약 및 의약품	122,856	10.5	187,804	52.9
8	LPG	94,820	-31.3	164,345	73.3
9	기초유분	43,504	79	148,451	241.2
10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9,374	41.5	147,760	35.1
합계		5,141,715	-20.4	7,277,087	41.5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